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갈 이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44장(지난 이레 동안에)..... 다 갈 이
※ 교 독 문 13(시편 23편)..... 다 갈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95장(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갈 이
예배기도 1부 안복선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살아계신 주”..... 다 갈 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 경기노회 제181회 정기노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고린도후서1:18-20 박상귀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긍정적 믿음으로 ” 최세열목사
기 도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 545장(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 다 갈 이
봉 헌 (9 구역)..... 다 갈 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창립50주년을 준비하는 모임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뵤전 2:1-10 말 씬 / 최세열목사 “성장하는 신앙” 주기도문 / 다같이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읍기서강해	
				금요기도회	
주일 오후2시 진행 : 최세열목사 기도 : 김인순권사				금요일 오후8시 합침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오복실 안복선 노대성	다 음 주 기 도	1부	정연태목사
	헌금위원	4월 심문자 김종천 홍강의 인민숙	다 음 주 성경봉독	2부	박홍만장로
		5월 박기환 정선례 김귀례 송영임		1부	말 은 이
	식당봉사	금주 마르다B 다음주 에스더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2부	김애자권사
헌신찬양	금주 9 구역	다음주	10 구역		

“긍정의 믿음으로” / 고린도후서 1:18-20(롬8:37-39)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가장 강한 부정의 사건입니다. 역올한 죽음, 진리를 선포하신 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모든 부정을 뒤집는 가장 강한 긍정의 사건이었고, 이로 인하여 제자들은 변화되었으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강력한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부정의 눈과 긍정의 눈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교회이든 성도 개인이든 어떤 눈으로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꿈은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의 꿈이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2:28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꿈을 품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꿈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꿈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실현시켜 주십니다.

2. 어떤 경우에도 긍정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12: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본문 19,20절을 보면 그분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란 ‘진실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긍정적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긍정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27-30절을 보면 주님은 두 맹인에게 내가 할 줄로 믿느냐고 물으시고,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하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무엇이든지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히11:1).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모든 상황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롬8:37-39).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요 13:1).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8:31).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입니다(롬8:3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빌4:19). 하나님은 저와 어려분,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패배의식은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8:37).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34:13)는 말씀을 기억하며 긍정적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신앙주제4:고난과 부활)
4/22 제4과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더라(누가복음24:13-35)

말씀 살피기

이 과의 성경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 제자는 온종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압니다.

말씀 묵상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부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고전15:14).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신앙의 눈이 닫혀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온종일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저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밝힙니다(16절). 여기서 말하는 눈은 단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22-24절).저들의 불신앙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25절).

둘째, 신앙의 눈이 열려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 선지자들이 예언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32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일 때까지 그들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예수님을 붙들고 음식을 같이 나눌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는 순간 닫혔던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30-31절)

셋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막4:12)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보려면 우리는 '신앙의 눈'을 떠야합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것과 열리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은 가까이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활짝 열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날마다 희망과 능력으로 가득 차야합니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 찬양예배는 창립50주년(2021년)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모입니다. 모든 제직들과 교우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교인 봄 수련회를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과 준비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경기노회 제181회 정기노회가 23일과 24일 성남 둔전교회에서 회집됩니다.

4월의 교회행사	
1. 평신도참여예배 : 4월 15일 / 마르다회	
2. 전교인봄수련회 : 4월 21일(토) 오전9시 / 천리포수목원	
3. 해든솔선교활동 : 4월 14일(토) 오전8시30분	
4. 경기노회 제181회 정기노회 : 4.22-23 / 둔전교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한 장군이 전투 중에 애틀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를 불러 절대로 애틀눈이라는 것이 그림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고 지혜로운 화가는 장군의 머리를 늘어뜨려 한쪽 눈을 가리는 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정치인이자 장군인 크롬웰은 초상화를 그릴 때 완전히 다른 부탁을 화가에게 했습니다. “내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려주게, 흉터 하나, 주름 하나라도 빼놓는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네.” 수많은 전쟁터를 경험한 크롬웰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많은 상처가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롬웰은 그 상처와 주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영광의 훈장이라고 생각했기에 조금도 가리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낙관적 사고

미국의 역대 퍼스트레이디들 중에서 ‘가장 호감 가는 여성’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엘리너 루스벨트다. 엘리너의 얼굴 표정은 항상 ‘매우 맑음’이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엘리너가 열살 때 고아가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는 한 끼 식사를 위해 혹독한 노동을 했다. 심지어 돈을 ‘땀과 눈물의 대가’ 라고 부를 정도였다.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낙관적 인생관이었다. 엘리너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여섯 자녀 중 한 아이가 사망했을 때도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다섯이나 있는 걸” 이라고 말했다. 인생의 말년에 남편 루스벨트는 관절염으로 ‘휠체어인생’이 됐다. 휠체어의 루스벨트가 엘리너에게 농담을 던졌다.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엘리너는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라고 대답했다. 밝은 성격과 낙관적 인생관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최세열 조성순 천사라 윤종원 한상호 차소라 이종열 박현순 김홍영 황은상 김상례 김귀례 김병진 박기환 한옥자 서순자 김근중 주종임 오복실 관현석 서영자 박지영 허 웅 김순임 노순영 최광희 김애자 선우명환 장영분
- 감사헌금 : 이종열 박현순 박기환 한옥자 김혜경 김병진 김귀례 최세열 조성순 김순임 김지환 양희임 김동현 김애자 (일천번제) 이병각 인민숙 김동현 김지환 한진현 한재현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임정현 김애자 오복실 관현석 김근중 주종임 박기환 한옥자 이종춘 심문자 김귀례 김병진 허 웅 김순임 한상호 차소라 선우명환 장영분 서순자 노순영 최광희 에스더회 사라희
- 비전씨앗 : 배영인 김하윤 강효진 이재승 이은혜 황은상 이윤기 박주환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훈만	공영순	심복례	3	17,000	97	천사라	7	이영선	김홍영	이영선	3	10,000	30	김성희
2	정정희	김한순	정정희	3	18,000			8	김순님	오복실	오복실	3	20,000		허 웅
3	이춘호	황경숙	박정일	4	13,000	50		9	김인순	이영란	김인순	2	6,000	100	김선자
4	김기희	김경희	최경선	4	16,000	40	주종임	10	장영분	노순영	김애자	3	15,000		
5	이문순	원혜경						계				29	135,000	350	
6	류종란	김애자	김애자	4	20,000	33	김혜경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1:00	도 서 실

원전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한다”

2018-16호 2018.4.22.

부활절 넷째 주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 넷째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잊고
얼마나 자주 어두운 무덤 속에서 지내왔는지요.
아직도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무덤가 주위만을 맴돌고 있음을 보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찾았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죽은 자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서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살리시므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으니
이후로는 절망과 죽음의 길을 떠나
승리의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속에서 나의 힘과 경험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지식과 소유의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답임독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정언태독사 지휘:손효모 반주:김은영 최지현